

제보전화 : (051)500-5145 0메일 : opinion@kookje.co.kr



㈜대성문(대표이사 채창호)은 최근 부산지역 내 저소득가정을 위한 식료품 등의 후원물품(5000만 원 상당)을 조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난 2일 교내 10.16기념관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대연으로 개최했다.



NH농협은행 부산본부(본부장 정찬호)는 6일 지역내 21명을 신규 채용해 임용장 교부식을 갖고 은행원으로서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부산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5월까지 매주 토요일 온천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온천카페거리상인회와 'ON천천 마켓'을 운영한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6일 연연인 축구팀 FC트롯퀸즈(주장 서지오)와 함께 '2030 부산 월드컵'의 성공적 유지를 응원했다.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와 부산경상대학교(총장 최미현)는 지난 2일 구직 지원을 위한 '연제구 취·창업비전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이병학)는 지난 3일 지역사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영화배우 지대한 씨를 학교폭력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집단민원 해결 위해 지자체 시민고충위 설립 절실”

##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울산 6개 구·군 절반 설치 민원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 부산 '0' 경남 1곳 그쳐 아쉬움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는 5인 이상의 집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며 “전국 지자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간 집단민원이 8000건 이상 접수되고,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2000건 가까이 들어온다”며 “집단 민원이 정상적으로 풀리면 많은 국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길거리 시위를 하게 되는데, 지나친 확산기 사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시위 문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며 “민원을 소극적 자세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집단 민원의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민원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발생 여지를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하고 싶은 게 권익위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의 고충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19,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권익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토대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열심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임시로 두고 있는 기업고충 관련 전담 팀을 정식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집단민원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내 시민고충처리위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된 곳은 70곳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어떤 민원은 중앙기관의 능력만으로는 다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울산은 부산 경남과 대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울산 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곳에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남은 1곳(양산시), 부산은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울산은 민원 해결이 굉장

히 원활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 제가 현재 부산에서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시민고충위 설립 등)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부산시각 지자체 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간 1000만 여건 접수된다. 민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국민이 어디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것이 권익위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위험이 닥칠 때 같은 민원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기가 있다”며 “이것을 토대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울산에서 태화초·제일중·학성고를 나왔다. 이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조원호 기자

## 동아대 동문장학회, 학부·대학원생 27명에 장학금

### 신정택 이사장 “지역사회 인제되길”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최근 (재)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이사장 신정택)가 '2023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사진)'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동아대 동문장학회는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학생에게 모두 11억여 원의 장학금을, 교수들에게 4000만 원에 이르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2일 부산 영도구 목장원에서 열린 수여식엔 신정택 동문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회 관계자, 신용택 학생·취업지원처장, 장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학부생과 대학원생 27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2700만 원의 장



학금이 전달됐다. 신 이사장은 “25만명을 넘어선 동아대 동문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며 지역사회와 모교 발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후배 여러분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모교가 단순히 ‘훌륭한 대학’을 넘어 전 세계 초일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 최영호 동성고 총동창회장 모교 장학금 등 2000만 원

최영호(사진) 부산 동성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은 지난 2일 모교에 장학금 1000만 원과 배우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2000만 원씩 학교 발전 후원금을 기증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후원할 총 금액은 1억 원으로 모교 학생들의 향학열 고취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배우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호 회장은 나라의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부산 나라이양병원, 중앙나라이양병원, 드림나라이양병원과 자매재단인 동일의료재단 수영나라이양병원, 금정나라이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호 텔급 편의시설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450병상 규모의 스마트나라이양병원을 개원하는 등 노인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어려운 학생과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 등을 활발히 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의료사업가이다.

최영지 기자



## 두산건설, 부산적십자에 우암동 취약계층 위한 성금 전달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최근 부산 남구 우암동 일대 취약계층을 위하여 성금 26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인)에 전달(사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부산 남구 우암동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두산건설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함께 대상가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오세욱 상무는 “이번 지원금이 긴급위기가정의 생계와 의료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적십자사 서정의 회장은 “지원금은 지역 내 장애인과 홀몸어르신,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과 긴급위기가정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에도 ‘희망풍차 결연 세대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취약계층 1303세대에게 쌀(5kg)과 김치(10kg)(총 7475만5647원 상당)를 전달했다. 또 강원소방본부 삼척지사와 함께 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소화기 보급을 확대하고자 분말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동주대→부산보건대 개강 첫날 현판 제막식

부산보건대학교(총장 정학영)는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개강 첫 날인 지난 2일 대학 정문 입구에서 50여 명의 보직교수들이 함께 모여 현판 제막식(사진)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978년 동주여자전문대학으로 시작해 교명을 변경한 부산보건대의 현판 제막식에서 정길영 석파학원 이사장은 “미래의 50년을 힘차게 열어가자 하는 현판 제막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보건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하며 대학부속 요양병원 설립까지 새롭게 도전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개강에 맞춰 사하구 1번 마을버스 스가 캠퍼스를 순회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최영지 기자

## 이준호 대한민국정형외과 병원장 ‘납세 우수’ 표창

대한민국 정형외과는 병원장 이준호(사진 왼쪽) 원장이 지난 3일 부산시로부터 우수 납세 개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부산시정 대강당에서 열린 제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원장은 표창을 받았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병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91건에 대한 세금 2억100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와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공이 크고 꾸준히 지역에 기부하는 등 동래구 온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의료 및 지역보건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 원장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영광이다. 앞으



로도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는 물론이고 의료지원 및 다양한 공헌 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지 기자

## 장애인행복나눔 시낭송대회 개최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회장 강충길)는 지난 3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5회 전국 장애인행복나눔 시낭송대회(사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사)시읽는 문화(이사장 김윤아)가 진행해 23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대회에서 시각장애인 성원용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눈사람안과 의원원이 이번 시낭송대회 시상금 560만 원을 후원했다.

최영지 기자

